

2017년 10월 20일, 남원을 신례2리 문인진 씨 덕, 진선희 조사.
문인진(여, 1930년생, 남원을 신례2리)

- 줄거리: 예전에는 도깨비불을 보는 일이 많았다. 이른 시간 모자반을 채취하기 위해 길을 나설 때도 도깨비불을 보곤 했다. 불이 꺼져있을 때 가까이서 보면 소뼈나 말뼈 같은 것이었다. 사람들은 짐승 뼈가 도깨비불로 환생한다고 생각했다.

[조사자] 들은 말 중에.

[제보자] 눈으로 본 거뻬이 없어. 도체비. 남자들은 옷부락에 가서 입초 서곡 우리는 여자분들은 바닷가에 보초해서 입초 서라 해서 입초를 섰는데.

[조사자] 언제마씨?

[제보자] 한 열다섯 살에. 입초를 샅는데 입초 상 보니까 우리 옆쪽이 쪽 허게 내가 집 한들이 지성 있긴 있는데 그쪽에서 불이 딱 솟아올란게. 솟아오르니까 이상허다 저 불이 사람 불 붙여서 들른 불도 아니고 수상허다 행 보초 아이들신디

“니네들 나와 바라. 이상한 불이 있는데 저것이 도체빋불이다.”

경 헌디. 이것이 딱 허게끔 세 개 갈라지더라고. 두 개는 동쪽드레 가고 하나는 우리 입초 산드레 와. 망장포 바다에 입초 샅거든. 우리 앞으로 횡 넘어가지고 예춘망드레 가. 도체비란 것이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. 경 헌디 그제 도체비란 것은 정말로 보민 무섭고 도체비란 것이 저런 거로구나 느낀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거 보고 그루후제는 그런 게 없어.

[조사자] 옛날에 도체비 얘기 들은 거는 엇수가?

[제보자] 보기 전에는 ‘도체비 난다. 도체비 난다.’ 얘길 들어. 우리가 망장포 사니까 막음 올리면 놈 아니 강 건질 때 우리가 가서 건져다가 거름할라고 가젠 허면

“도체비 낭 무서워서 못 간다 불거들랑 가라. 지금 가면 도체비 나서 무서워서 못간다. 불거들랑 가라.”

“무엇으로 도체비 뉘는 거봐?”

허면 그것을 보면 쉼팡같은 거 말팡같은 거 불이 꺼정 보면 그런 걸로 뉘는 거라라. 그렇게 얘길 허여. 별 다른 건 엇는디 짐승 빼다귀로 도체비가 생기더라고. 빼다귀가 도체비로 환생해가지고. 망장포 코쟁이 황개찬이라고 해녀들 탈의장 거기서 우리가 많이 봤어. 위미리. 소롱곳 코쟁이. 거기서 그것이 나타나서 깨지면서 산 사방드레 집 구석드레도 가고 동쪽드레도 가고 하더라고.

아버지가 도체비 나난 가지 마라. 몽케난 가지 마라. 붉거들랑 가라 허연.

- 핵심어: 도체비(도깨비), 쉼팡(소뻘), 말팡(말뻘), 망장포, 도체빋불(도깨빋불), 위미리, 바닷가, 입초, 바다